

봉 행사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을 기념하는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에 참석해주신 남과 북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산가족 상봉을 바로 앞둔 시점이기에 더욱 뜻 깊은 법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속에서 주춧돌과 탑신의 자취만이 남아있던 이 자리에, 소실 전 모습대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신계사를 복원한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신계사는 소실된 우리의 불교문화유산을 남과 북의 불교도들이 힘을 합쳐 복원해낸 뜻 깊은 불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정신까지 복원하고자 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운동사에 길이 남게 될 불교도들의 큰 걸음을 이끌게 하였고 이는 고대하던 원력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복원불사를 회향한 신계사는 민족화해의 상징으로서 금강산에 우뚝 섰고,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 또한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이 곳 신계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어 모두의 안타까운 마음은 두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반가움이 가득한 남북합동법회를 계기로 우리의 마음처럼 금강산 길이 다시 열리고, 손잡고 걷는 신계사 순례길은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상승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내금강 지역의 유구한 불교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교의 성지이자 통일의 상징인 금강산을 소중히 지켜나가는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발원과 실천은 수 천년을 같은 말과 같은 문화속에서 살아왔다

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마음의 통일을 이루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자 민족의 역사를 현시대에 빛내는 지혜로움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너그러운 터전에서 며칠 후에는 마음으로만 기억하는 그리운 얼굴을 상봉하고, 평생 가슴으로 흘렸던 눈물을 서로 어루만지는 뜻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두가 통일의 원력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발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청명한 기운이 가득하고 평화와 공존을 조성하는 오늘을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신 강수린 위원장님과 북측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